

2021년 7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산업정책과 과 장 최명철(044-201-2411), 사무관 서지예(2421) / 제공일: 7월 29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결과 발표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식품부, 전라북도 익산시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지로 선정
 - (추진경과) 입지 공모(5.24~7.9)→ 신청접수→ 서류심사(7.15)→ 현장평가(7.20~22)→ 발표평가(7.26~27) → 선정 발표(7.30)
 - (선정이유) ▲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 ▲부지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여건 ▲유관기관의 집적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될 부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를 선정하였다.
-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·창업 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, '22~'24년까지 3년간 국비 231억을 투자하여 조성되며, ▲산업 생태계 구축 ▲유망 벤처 발굴·유치 ▲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.

○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공모를 하였으며, 서류심사 → 현장평가 → 발표평가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익산시를 최종 선정하였다.

□ 전라북도 익산시는 ▲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참여 정도 ▲부지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여건 ▲유관기관의 집적화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○ 해당 지자체는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,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.

○ 또한, 부지 개발 관련 행정절차 처리 여건이 우수하며, 농생명 분야 산·학·연·관의 집적도가 높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우리나라 그린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으로 조성하고,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